



### 매체포교 이정표 다시 세운다

## 보르헤스 문학과 불교의 점점 친절히 소개 문학평론가 김홍근 씨

‘20세기의 장조자’라는 찬사와 함께 현대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남긴 남미문학의 대표작가인 보르헤스. 이름만 들어도 그의 팬임을 자처하는 문화도가 많은 그 거장이 불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불교계에 처음 알린 사람이 바로 김홍근씨다.

그는 현대불교를 통해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를 96년 1월 17일(61호)부터 33회 동안 연재했다. 보르헤스가 1976년 펴낸 책 <불교강의>를 문학평론가 ‘김홍근’의 시각에서 재구성해 선보인 것. 문학에 관심 있는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자들이 보르헤스와 불교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던 때에 연재됨으로써 적잖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김씨는 “이성 중심의 극단적 지적 편향을 보였을 때, 편협한 이성주의의 한계를 누구보다 먼저 예리하게 지적하고 그 극복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보르헤스”라며 그 극복대안을 불교적 세계관이라 소개했다.

그러나 그의 ‘소개’는 단순히 보르헤스를 이해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보르헤스의 문학에 영향을 준 불교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혀 주었다. 김홍근씨는 이후에도 ‘문학 속의 불교’를 연재하며 ‘문학’으로부터 불교를 보는 눈을 열어주었다.

## 무겁지 않게 들려준 ‘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형조** 교수

현재 <금강경 강의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을 연재하고 있는 한형조 교수. 그가 현대불교의 독자와 인연 맺은 것은 97년 4월부터 98년 12월까지 연재한 <무문관탐방>을 통해서였다. <무문관>은 중국 남송 때 옛 선사들의 어록을 뽑아 만든 중국 선불교의 대표적 서적이다. 한형조 교수는 매우 현학적인 주제를 유려한 문체로 녹여내는 재주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학자적 입장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선(禪)’이란 일반인에게 ‘똥구름 잡는 소리’로 보이기 십상이다. 그러나 한 교수의 글에서는 그러한 의식을 읽을 수 없다. 한 교수는 최대한 평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평상 언어에 선이 들어 있음을 일깨운다. ‘무문관’ 48칙을 가법해 다뤘다는 말은 아니다. 그것이 연재의 인기도를 높인 비결일지 모른다. 한형조 교수는 독자에게 자신이 고민했던 지점에서 들은 선사(禪師)의 가르침을 전하며 연재를 마친다. “의미를 찾아 헤매지 말고 의미를 향한 욕망을 지울 것. 시들하고 늙어빠진 삶 너머에 의미 혹은 진리의 광채는 없다. 네게 주어진 것 그것이 전부이다.”



## 사찰 건축 보는 눈 열어줘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교수

김봉렬 교수는 1999년 1월 연재를 시작한 <가람의 장면들>에서 건축가의 눈으로 본 사찰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전했다. 현재 문화재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교수는 사찰을 둘러 볼 때 그냥 넘어가기 쉬운 것도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에 대해 밝혔다. 관림계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자태만 감상하고 지나가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 이 탑이 삼국 통일 후, 중앙정권으로부터 유리된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고구려 목탑 양식을 그대로 살린 석탑도 이 지방에 존재할 수 있다고 일러주는 사람이 김 교수다. 김 교수는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하지만, 대중에게는 방편에 맞는 설법을 하셨다. 한국 가람건축의 위대함은 바로 시대마다 그때를 호응하는 건축을 발전시켜온 점이다. 그 위대한 전통이 현재는 단절되어 있다. 현대적 방편에 맞는 가람건축은 언제나 가능할까?”라는 물음으로 연재를 마쳤다. 결국 ‘과거의 가람’들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것을 일깨워준 김 교수의 목소리가 독자들의 뇌리를 오래 떠나지 않는 것이다.



## 별자리가 깨달음의 자리

前 서울대 교수 **이시우** 박사

별의 세계가 불교의 세계라는 생각. 혹은 믿음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줄 자가 이시우 박사다. 그는 천문학자이자 ‘무문관 제 20칙’에서 나온 개념인 <풍 막대기>를 제목으로 선 시집을 펴낸 시인이기도 하다. 그는 2001년 10월부터 연재를 시작한 <첨단과학과 불교>에는 별의 탄생과 죽음, 빛이 나는 이유에 모두 불법이 들어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렸다. 이 박사가 추구한 글의 세계에는 우주와 인간 간의 역동적 역학관계가 밝혀져 있다. 그리고 불법이 첨단과학의 원리를 모두 끌어안고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별자리는 곧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이다.

이 박사는 2002년 6월 5일 372호를 마지막으로 <첨단과학과 불교> 연재를 마치면서 연재물의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신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단군신화는 우리 민족의 우주관이고 신화인데, 현대에는 ‘기계적’ 신화만 가득해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류의 정신문명까지 기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 대한 탄식에 다름 아니다.



1996년 11월 27일자(104호) 1면에 보도한 ‘환경보존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 장면’.

## 논쟁 가득한 ‘열린마당’ 불교발전에 기여

### # 경부고속철 경주통과 백지화

창간 후 두드러지게 여론 반영을 한 사안은 경부고속철 노선의 경주를 통과반대였다. 95년 9월 27일(46호)부터 시작된 경주 고속철 기사는 ‘경주를 사랑하는 연대모임’의 발족, 경주 고도보존법 제정 등 고속철 경주통과 문제와 개발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현장, 한국불교재가회의와 재가연합회 경주고속철 통과 반대운동을 펼치기 위해 대책위 구성과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 등을 지면에 담아냈다.

또한 95년 10월 광역단체장 의식 조사 설문문을 실시해 ‘경주 고속철’ 문제와 관련, △문화재나 자연환경이 지역개발에 우선해 보호돼야 한다(43.8%) △환경보호가 우선돼야 한다(18.8%)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 관련부처, 교계, 학계 및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과 문화재 및 환경보호’라는 과제를 앞에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 받았다.

### # 해인사 환경지킴이 여론 확산

95년 ‘가야산 골프장’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해인사와 불교계, 지역 환경단체의 의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수행환경 지킴이라는 당위성에 방점을 둔 논조를 울리게 유지해 ‘사업 허가 취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계기로 해인사는 수행환경 지킴이 대표위원 사찰로 부각됐다.

2001년 ‘해인사 청동대불’ 문제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해인사 대불 조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수경스님의 기고문이 2001년 7월 4일자 현대불교에 실리면서 불교계와 사회에 ‘불사와 환경’은 중요한 화두가 됐다. 다소 과격한 언행과 행동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 불사 계획은 무산됐다. 현대불교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 의견과 해인사의 불사 당위성을 균형 있게 보도했으며 불교계 안팎에서는 진지한 토론이 이어져 불사와 환경보호를 주제로 하는 ‘사부대중 토론회’도 열렸다. 현대불교는 원로 중진 스님 50명을 대상으로

로 설문문을 실시해 인재양성 등 이타행의 불사가 중요하다(80%)는 결론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현대불교는 환경 문제와 관련 창간 이후 줄곧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다.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 북한산 관동도로 백지화운동, 천성산 생명 살리기 운동, 새만금 갯벌 살리기 등의 목소리들을 비등 있게 보도하면서 다양한 기획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 불교미술발전 모색 다양한 의견 펼쳐

2004년 5월 12일자 현대불교 열린마당에는 윤범모 교수(경원대)의 기고문이 실렸다. 제20회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에서 ‘현대화’ 부문이 폐지된 데 대한 신랄한 비판이었다. 이 기고문을 계기로 불교미술계와 불미전을 주최하는 조계종 총무원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윤교수는 기고문에서 “불교 집안만의 행사에서 일반 미술계를 아우를 수 있는 미술전이 되기를 희망했다”며 불미전의 현대화 폐지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과 전통불교미술 분야 작가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현대불교는 이 문제에 대해 ‘열린마당’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불교미술가 전연호 씨는 ‘불미전에 관한 평론가의 주관적 사조에 부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윤 교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윤범모 교수가 제기한 문제점들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글을 신기도 했다.

오경원(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도 윤 교수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글을 기고했다. 현대불교의 ‘열린마당’을 통해 한 달여 동안 진행된 논쟁은 한국 불교 미술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의 다양성이라는 중도적인 견해를 회향하는 분위기로 흘렀다. 이런 시점에서 윤 교수가 6월 9일 기고문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불교 미술전발회의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논쟁은 일단락 됐지만,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한 각계의 고민은 현대불교의 중요한 기획 테마로 자리 잡았다. 김강진 기자

## 폐사지 가득한 역사 친절히 안내 진각종 복지재단 장지현 사무처장

폐사지의 쓸쓸함 속에 묻히고 싶은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곳을 가보고자 하는 사람 또한 많지 않을 것이다. 장지현 진각종 복지재단 사무처장은 세월 앞에서 모습을 잃어버리고 흔적만 남긴 폐사지들을 찾아 다니며 그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 힘 쓴 필자로 현대불교 독자들에게 기어되고 있다. 2002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장지현 정사가 돌아본 폐사지는 21곳. 잊혀졌던 폐사지들은 그의 시적 감성으로 애잔하게 소개되었다. 더러 그는 ‘교회 마당 어귀에 화려석으로 드러누운’ ‘석주’와 ‘석등’ 부재의 막막한 표정을 읽어내기도 했다. 그의 읽음은 곧바로 후손들의 계



름에 대한 질책이다 못해 섬뜩한 전율로 지면을 장식했다. 그의 순수한 언어는 독자들을 폐사지의 행한 현장으로 끌고 가곤 했다. 장지현 처장은 제주도의 100여 곳이 넘는 폐사지를 둘러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심연에서 깊어 올린 한 서린 그 울림들...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어 그 긴 울림을 독자들 몫의 여운으로 남겨 둔다”고 마무리했다. 그가 답사한 폐사지의 역사성은 현대불교 지면에 아름다운 사찰로 재탄생했고 독자들의 기억 속에도 그려질 것이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 축하합니다

# 육법등 (六法燈)



의장등록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충만 및 대리점 모집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